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인력난 '숨통'

### 道, 15개 시·군 25개 일자리사업 57억 지원 미스매치 해소... 中企 고용 환경 개선 기대

전남도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이달부터 시·군별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활성화와 고용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2024년 도 공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시·군에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 총 15개 시·군에 2

5개 사업을 선정, ▲교육·훈련 ▲창업·창직 ▲취업 연계 ▲산업단지 환경 개선 ▲샌드박스 등 유형별 일자리 사업에 도비와 시·군비 57억원을 지원한다.

교육·훈련 주요 사업은 석유화학산업 현장 인력 양성, IT/3D 취업·창업 기술 양성, 철강산업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예정이다.

창업·창직 사업으로 관광산업을 위한 관광식품 및 친환경 관광상품 융합 창업 지원, 크리에이터 지원 등 지역 핵심 산업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한다.

취업 연계 사업은 지역 특화 맞춤형 구인·구직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 빈 일자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5000 커리어 리스타트(RESTART) 프로젝트를 지원해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지역사회 참여 및 공헌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 내 공동 무료 통근버스 운행 지원과 근로자 숙소 임차료를 지원(1인 월 30만

원 한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고용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함께 도 공모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716명 취·창업, 13만2천여건의 일자리 연계 실적을 내 도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선주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의 일자리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자체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국제아트페어 '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

### 전남도, 내일 개막 '아트 오엔오 2024'서 특별전 선배

전남도는 17일 "오는 19일부터 서울간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국제아트페어 '아트 오엔오 2024'에서 '수묵 특별전'을 진행, 한국 전통 미술인 수묵을 세계적 갤러리에 알리고 '2025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트 오엔오 2024"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0여개 국가의 갤러리가 참가한다. 국내보다 국외 갤러리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번 특별전에서 전남도는 전남도립미술관 소장품인 허백련·허달재·김

천일 등 전통 수묵 작품과 채색이 깃든 수묵담채화 등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수묵화의 전통적 맛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양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다.

박우욱 문화융성국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수묵화의 독특한 매력을 글로벌 미술계에 알리는 기회"라며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잘 준비해남도 전통 수묵이 새로운 케이(K)-아트로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市, 문화콘텐츠 코어 기업 유치 본격화

### '콘텐츠기업유치協' 발족... 亞문화도시 투자 활성화 목표

광주시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를 최근 발족하고 문화콘텐츠 기업 유치를 시작했다.

17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콘텐츠기업유치협의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미시간벤처캐피탈, 키로스벤처투자, 한국가치투자, 오라클벤처

투자 등 벤처기업 자본(벤처 캐피탈) 4개사로 꾸려졌다.

협의체는 기존 기업유치 설명회 등 행사 중심의 유치 활동이 아닌 핵심 역량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정보수집 채널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유치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투자진흥기구 내 입주기업의 특전(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선강기자

### ▶1면 '의대 설립 기회'서 계속

무엇보다 김 지사는 공모 공정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김 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를 위탁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추천 대학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용역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국립대의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 평가기준 마련, 심사, 추천 대학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목포대·순천대) 양 대학과 도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현재 위탁 용역기관 선정을 준비 중으로 추천 대학 선정까지 4~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모 이후 탈락 지역에 대한 특단의 보완 대책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해당 지역 도민의 건강권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단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역 정치권을 향해 "해당 지역 만을 앞세운 과도한 주장을 자제하고 모든 지역 도민의 건강권과 전남 전역의 의료 완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도지사의 명예를 걸고 가장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의대 설립 문제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공모 방식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목포대는 의대 설립 공모 참여 방침을 밝힌 반면, 순천대가 불참 의사를 발표해 향후 전남도의 공모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SFTS 감염 주의하세요" 최근 3년 전남 15명 사망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전남지역 감염자가 매년 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자는 2021년 9명, 2022년 14명, 2023년 16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15명이 사망했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885명이 발생했고 355명이 사망했다.

참진드기는 농경지 외 텃밭, 농로, 개울, 산 등 잔디와 낮은 식물로 덮인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이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시킨다. /양시원기자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유설명회 16일 광주 북구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북구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자치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사업 공유설명회가 열렸다. <광주북구 제공>

## 광주-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

###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 첫 회의... 달빛고속철도 등 협력

광주시와 대구시가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7일 전북 남원시 남원아트센터에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달빛산업동맹 실무협의체는 양 시의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협력 과제 부사장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2월 달빛고속화철도 경우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주요 협력 과제는 ▲달빛고속화철도 조속 건설 ▲달빛첨단산업단지 조성 ▲국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지역 인재 육성 ▲2

038하계아시아게임 공동 유치 등이 다.

첫 회의에서는 협력 과제별 추진 목표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타당성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또 달빛고속화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건설 공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2038하계아시아게임 공동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 시는 현안에 따라 수시 회의를 개최해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동시 상생 협력 모델인 달빛동맹이 하늘 길과 철길에 이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부거대경제권을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실무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지중화공사구간확정공고안내

해남군 도시계획도로 지중화확정지역 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지중화공사 목적 :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
- 지중화 확정지역 : 2구간: L= 125m(해남읍 구교리 420-13 ~ 530-4) 3구간: L= 213m(해남읍 고도리 160-1 ~ 평동리 189-3)
-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4. 5 ~ '25. 5 (12개월)
- 신·증설고객 지중화공사시행 기준일 :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 지중화 확정지역 위치도

2구간(해남읍 구교리 420-13 ~ 530-4) 3구간(해남읍 고도리 160-1 ~ 평동리 189-3)

2024년 4월 18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해남지사

###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료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1)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2)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3)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유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